

한국어 피동문의 구조와 가능(potential)의 의미 해석*

-대조적 관점에서-

목정수 · 김영중

(서울시립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한국어에서 접사에 의한 형태론적 구성의 성격을 띠는 피동사라고 하는 어휘들은 하나의 형태를 통해 ‘피동적’인 의미와 ‘사동적’인 의미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저 건물이 보이냐?’ vs. ‘아빠한테는 그거 안 보여 줄 거야?’, ‘모기한테 몇 방을 물렸는지 몰라’ vs. ‘우는 아이 젖 좀 물리세요’. 따라서 많은 경우에, 소위 ‘이/히/리/기’ 등의 접사가 붙은 동사들은 그 자체로서는 피동과 사동의 뜻을 구분하기 어렵고, 그 동사가 실현되는 구문의 틀에 의해 그 의미가 피동이나 사동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동과 사동이라는 극과 극의 개념이 동일한 형태소로 표현되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본고는 피동의 구조로 실현된 문장에서 그 문장의 전체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한국어 구문분석에 있어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 해석이 문형의 설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주목적을 둔다. [X-가 Vpass-어미]의 형식으로 실현된 문장의 구조를 중심으로, 능동과 피동이라는 논리적 관계에서의 명제 내용 파악을 넘어서서 문장 속에서 실현되는 인칭(person)과 서법/양태(modality)의 구조를 고려했을 때 문장 구조의 파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본 연구는 필연적으로 소위 ‘이중주어 구문’ 특히, ‘주관동사’ 또는 ‘심리형용사’

로 알려진 어휘의 논항 구조와 긴밀히 연계된다. 전반적으로 본 논문이 주목하는 피동문의 구조가 이들 이중주어구문과 평행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N0-는 N1-이 Vpass-어미] vs. [N0-는 N1-이 주관동사/기술동사-어미].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조사 {이/가}에 대한 새로운 지위 규정에 토대를 두고 이중주어구문을 새롭게 분석하고 있는 목정수(2004, 2005)의 기본 시각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때, 한국어 피동문의 기본 구조의 한 유형을 ‘(Z-는) X-가 Vpass-어미’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구문의 한 성분인 ‘X-가’의 통사적 기능을 주어가 아닌 목적어(또는 보어)로 파악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피동문 구성의 의미 해석이 다시 그 피동이라는 단순한 논리적인 의미보다는 양태(modality)의 측면에서 ‘가능(potential)’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일본어의 피동태/가능태 논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고, 불어를 중심으로 한 인구어에서 피동표현이 가능 양태와 맺는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어 타동사문의 경계

2.1. 한국어 타동사 설정 기준의 문제

한국어 피동문의 구조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 능동문, 타동사 구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어 타동사문을 규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X-를’ 형태의 목적어 성분의 사용/출현 여부이다(연재훈(1997) 참조).

- (1) ~는 고개를 숙이다 - *?~는 고개가 숙이다.
- (2) ~는 친구를 기다리다 - *~는 친구가 기다리다

그러나 {을/를}이 나타난다고 해당 동사를 무조건 타동사로 단순하게 규정하기에는 너무 이질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을/를} 자체를 ‘목적격조

사/대격조사로 보는 것 또한 그리 단순하지 않고, 문제의 소지가 많음은 이미 국어학계에 주지되어 있는 형국이다.

- (3) 가. 강원도로 놀러를 갔는데,
나. 학교에를 뭐하러 가는감?
다. 도대체 빨리를 안 가고 뭘 그리 꾸물거리고 있냐?
라. 뭐 그 문제를 아직도 풀리지가 않았다고?

또한 똑같은 자리에서 {을/를}이 {이/가}와 교체되는 현상도 이미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지적된 바 있다.

- (4) 가. 귀가 먹었다 - 귀를 먹었다
나. 손목을 빼었다 - 손목이 빼었다
다. 손목을 잡혔다 - 손목이 잡혔다
- (5) 가. 철수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다 - 철수를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다
나. 떡이 먹고 싶어 - 떡을 먹고 싶어
- (6) 가. 시골티가 벗다 - 시골티를 벗다
나. 어깨를 들먹거리다 - 어깨가 들먹거리다
다. 비를 퍼붓다 - 비가 퍼붓다

지금까지 우리는 {을/를}의 여부만을 가지고 타동사를 규정짓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가}도 반드시 주어와 연결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우리는 {이/가}가 붙은 성분이 어떤 통사적 기능을 갖는가를 판단하는 기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즉,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피동문 구성(Z-은) X-가 V_{pass}-어미에서 'X-가' 성분에 대한 해석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성분을 주어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목적어로 해석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동문과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 다른 동사 부류를 통해 한국어 문장의 전체 구조를 검증할 수 있

어야 한다. 외형적으로 피동문과 동일한 문장 패턴을 보이는 동사부류로는 기술동사(=기존의 성상형용사)와 주관동사(=기존의 심리형용사)를 들 수 있다.

2.2. 기술동사와 주관동사의 ‘가형 성분’의 통사적 기능

피동문의 구조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기술동사와 주관동사와 결합하는 ‘가형 성분’이 목적어, 양보해서 말하자면 非주어로 분석/해석되는 것이 정말 타당한가에 대하여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해 보도록 하자.

먼저, 단순하게 논의를 시작해 본다. “너 돈 좀 있나?”, “철수가 머리가 아픈가 봐”, “(너) 짬뽕이 그렇게 싫으냐?”에서 {돈}, {머리}, {짬뽕}의 통사적 기능(=문법관계)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학교문법을 위시해서 대체적인 경향은 이들의 통사적 기능을 주어라고 보는 것 같다. 이러한 진영의 논리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가}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는 주격조사니까 당연히 {돈}은 {돈이}의 생략형으로서 주어인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져놓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 보자. “{돈}을 주어로 봐도 상관없다. 그렇다면 {돈}을 주어로 보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이고, 그 문장을 외국어, 예를 들어 영어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보어라고 보는 측에서는 동사 {있다}가 행위성이 약하고 {을/를}을 취할 수 없으므로 {돈}을 목적어로 볼 수 없고 필수 성분을 고려하여 ‘보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론적 시각에서 인구어에서 {have/avoir/haben}류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지배하는 명사구 성분은 뭐라 해야 할 것인가?(Benveniste (1966), 각종 외국어 사전 참조)

우리는 위 두 입장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목적어, 목적보어’로의 해석 가능성이다. 우리는 기술동사 ‘있다, 없다, 많다, 파랗다 …’나 주관동사 ‘좋다, 싫다, 그립다, 무섭다, 시원하다, 답답하다 …’ 바로 앞의 {이/가} 성분이 소위 이중주어 구문에서 ‘목적어’로 분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존대 표지 {(으)시}를 통해 밝힐 수 있다고 본다(3.4. 절 참조). 이러한

작업을 선행하는 이유는, 이러한 동사들이 실현된 문장 구조와 동일한 문장 구조 속에서 피동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구조 속의 피동사의 의미를 단순한 ‘피동’이 아닌 ‘가능’의 양태적 의미와 연관지어 파악해 보는 가능성을 열기 위함이다.

2.3. 동사구 설정의 범위

전통적으로 명제는 주부와 술부로 구성되어 있고, 술부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를 명명하는 것으로 보아왔다.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술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타동사+목적어’를 VP 노드(node)로 묶는 것의 보편타당성을 통해, 절과 구 구성의 차이점을 밝히고 동사의 기본 의미 단위가 단어(word) 차원이 아닌 구(phrase)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해 본다. 이는 결국 이중주어 구문 논의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서술절 설정의 타당성을 재해석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목정수(2004, 2005) 참조).

우리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동사의 다의성(polysemy) 논의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동사의 의미는 그 자체로는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명사와 연결되어 사태를 명명하는 순간 그 동사의 의미 단위가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듯이, {먹다}의 기본의미로 ‘①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를 설정하고 있지만, 그 의미라는 것도 기실은 ‘음식(을) 먹다’라는 연결 속에서의 {먹다}의 의미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사는 그것이 무엇무엇과 구체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의미를 발현하는 것으로 보아, 동사의 의미단위는 [N+V] 구성 자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명사와 동사의 결합에서 해당 동사의 의미자질에 따라 선행명사의 조사 형태가 결정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조사는 두 단위의 결합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N(을) V] 또는 [N(이) V] 구성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러한 명사와 동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사건이나 사태를 명명하는 자격을 갖게 될 때, 그 두 단위의 결합을 ‘단어결합’이라 하고 그 단어결합은 하나의 단어처럼 취급하는

계 이론적으로나 응용적으로나 경제적이다(조의성(1995, 2001), 노마(2002) 참조). 그렇다면 ‘N+V’ 구성은 VP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VP 구성의 N이 통사적으로 주어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언어보편적으로도 N이 주어로 해석되는 경우는 주로 문장 S—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명제(proposition)를 말함—로 표상되기 때문이다. [S → N(P)+V]

예를 들어, ‘맛(이) 있다’, ‘빛(이) 나다’, ‘심성(이) 곱다’, ‘돈(이) 많다’의 구성이 어떤 상태나 성질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위로 굳어졌거나 굳어져 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맛, 빛, 심성, 돈’이 ‘있다, 나다, 곱다’에 대해 주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맛(이) 있다}, {빛(이) 나다}, {심성(이) 곱다}, {돈(이) 많다}가 하나의 단위로 명명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VP의 내부 구성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성분이 되는 ‘맛, 빛, 심성, 돈’은 V와 결합하여 S를 이루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VP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반면에 [사람이 (시장에) 있다], [고사리가 (산에서 많이) 나다], [철수가 (심성이) 곱다], [미국이 (돈이) 많다] 등에서 ‘사람이 있다’, ‘고사리가 나다’, ‘철수가 곱다’, ‘미국이 많다’라는 연쇄는 하나의 단위로 굳어져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N자리에 오는 것들이 다 주어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의 ‘코가 길다’라는 구성은 하나의 구구성(VP)이나 하나의 단어결합 차원에 머무는 것이지 그것은 문장(=명제) 차원의 구성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코(가) 길’은 ‘죽(을) 먹’와 통사적으로 구조적 평행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구더기(가) 무섭’, ‘고향(이) 그림’의 통사 구조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가. N0는 [밥(을) 먹다] - [육(을) 먹다] - [더위(를) 먹다] ...

예) 철수는 먹었대! → 뭘 먹었대? → 떡(을) 먹었대!

나. N0는 [코(가) 크다] - [눈(이) 크다] - [키(가) 크다] - [집(이) 크다] ...

예) 철수는 크다! → 뭐가 크다? → 코(가) 크다!

다. N0는 [호랑이(가) 무섭다] - [벌레(가) 무섭다] ...

예) 철수는 무섭대! → 뭐가 무섭대? → 호랑이(가) 무섭대!

3. 한국어 피동문의 구조와 그 의미 해석

3.1. 피동문과 주관동사 구문의 평행성

한국어의 피동문을 논리적으로 상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해당 타동사의 대상이 자리를 바꿔 구성될 수 있는 구문이면 다 피동문 구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그 대상은 주어 자리를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가. 건물을 보다 → 건물이 보인다

나. 물건을 도둑질하다 → 물건이/을 도둑(질) 맞다

다. 누구를 존경하다 → 누가 존경 받다

라. 책을 읽다 → 책이 읽어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구성이 문장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 ‘건물이 보인다’에서처럼, 피동접사에 의해 파생된 ‘보이다’ 동사나 타동사에 ‘-어지다’가 결합된 구성을 보면, 논리적으로 목적어에서 주어로 상승된 것처럼 보이는 성분 이외의 다른 성분이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실현된 문장의 형태로도 많이 나타난다. 아래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그러한 성분에 해당된다.

(7) 가. 난 건물이 잘 안 보이는데, 넌 잘 보이니?

나. 이상하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신문이 잘 안 읽히지.

다. 철수는 요즘 논문이 잘 안 써지나 봐.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문장의 형식을 평행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주관동사를 잠깐 언급하려고 한다. 이는 피동문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주관동사에는 논항구조의 측면이나 의미역의 관점에서 (8)처럼 경험주(= 주어)와 대상(=목적어)를 요구하는 두자리 술어와 (9)처럼 경험주만 요구하는 한자리 술어가 있다. 또한 이 동사부류는 의미상 행위자 인칭에 대한 제약이 따른다.

- (8) 가. (너) 음악이 그리 좋냐? = You like music so much?
 나. 어 무지하게 좋아. = Yeah, I like it so much.
 다. (그 사람) 음악이 싫대. = he doesn't like music.
 라. 선생님, 음악이 싫으세요? Sir, do you dislike music?
 마. 할아버지는 재즈를 싫어하신다. Grandfa doesn't like jazz.
- (9) 가. 와 추워라! = Uh j'ai t**fr**oid!
 나. (너) 배고프니? = Are you hungry?
 다. 아이구, 똥마려워. = I feel a bowel urge.

주관동사의 경우는 인칭제약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이정민(1976), 노용균(1989) 참조), 단어결합에 의해 하나의 동사처럼 행동하는 ‘맛(이)있다’의 경우는 주어의 인칭성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해석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여 흥미롭다. 이것은 주어진 동사의 의미가 논항구조와 인칭의 문형 패턴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으로 어휘의 의미를 단문의 구조 속에서 파악하려는 어휘-문법(lexique-grammaire)의 기초와 상통한다고 보인다.

- (10) 이 케익은 맛(이)있다. This cake has a taste.
 => This cake is delicious.
 ← 한자리술어(기술동사적으로)
- (11) 저 중국집은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 That chinese restaurant serves delicious zzajangmyeon.

← 두자리술어(기술동사적으로)

(12) 너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니?

=> Do you enjoy zzajangmyeon?

← 두자리술어(주관동사적으로)

3.2. 피동동사

한국어 피동 표현의 형식으로는 ‘이/히/리/기’의 접사파생에 의한 것, ‘-어지다’ 구성에 의한 것, ‘되다, 받다, 당하다’ 등의 기능동사(verb support)에 의해 것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앞의 두 가지 경우만을 다루기로 한다.

한국어에는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본유적인 주관동사 이외에 파생적 절차에 의해 형성된 파생동사들이 두자리 술어로서 주관동사와 유사한 통사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소위 피동의 접사 ‘이/히/리/기’가 그러한 역할을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피동접사가 붙어 형성된 동사 중에는 주동사와의 관계가 규칙적이지 않고 의미적으로도 불투명한 관계를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들 동사가 단순히 능동-피동의 통사적 절차에 의해서만 기술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동사들은 독립된 동사로 사전에 등재될 필요가 있고, 그 논항구조가 독자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생각해 보자.

(13) 가. (너) 저 글씨 잘 보이니?

cf. (너) 재즈 싫으냐?

나. *(너) 저 글씨 잘 보이시니?

cf. *(너) 재즈 싫으시니?

다. (너) 그 논문이 잘 읽히더냐?

cf. (너) 재즈가 그리 좋더냐?

라. *?할아버지께서는 내 논문이 안 읽히신다.

cf. *?할아버지는 재즈가 좋으시다.

마. 나는 네 목소리가 안 들려. 좀 크게 말해.
cf. 난 재즈가 안 좋아. 띠 음악 좀 틀어라.

다음의 복합문들도 이러한 시각에서 분석을 해야만 문장의 계층구조나 인칭 관계가 잘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상위문의 주어가 하위문의 제1주어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4가)에서 ‘나는’은 주절의 주어일 뿐만 아니라, ‘동생이 눈에 밝히다’라는 종속절의 주어로도 상정되어야 한다.

(14) 가. 나는 동생이 자꾸 눈에 밝혀서, 일이 잘 안 돼.
나. 철수는 귀신이 씌웠나 봐. 행동이 좀 이상해.
다. 저는요 귀신(이) 들렸는지 자꾸 헛것이 보여요. cf. 귀신에 들리다

다음의 ‘가형 성분’이 나타나는 복합문 구성과 대비해 보면, 그 구조의 평행성이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특히, (15다, 다, 다)의 ‘시’ 사용 여부에 주목해서 비교해 볼 일이다.

(15) 가. 내내 뒤척이다가 새벽잠이 들어 한 12시경에 일어났어.
나. 여기서는 금방 일자리가 나서지 않을 것 같아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다. 나는 혼처가 빨리 안 나서서 걱정이야.
다. 빨리 혼처가 나서서야 결혼도 하시고 안정이 되실텐데요.
다. 철수는 혼처가 나서기만 하면 바로 장가간단다.

이처럼 피동구문을 단순하게 [주어 + 피동사]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문장에 실현될 수 있는 전체 논항 간의 관계에 입각하여 [N0-는 N1-이 피동사-어미]라는 문형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구문에서 인칭 제약의 현상이 찾아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피동 구문의 의미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우리는 그 의미 해

석을 논리적인 능동-피동의 관계가 아니라 ‘가능(potential)’이라는 양태적 의미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논리적인 피동관계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라는 문제가 근원적으로 다시 제기되어야만 할 것이다.

3.3. 피동 구성 {-어지다} 구성

보조동사 ‘-어지다’ 구성도 ‘가형 성분’과 잘 어울린다. 일반 타동사의 ‘를형 성분’이 ‘가형 성분’으로 바뀌면서 태와 상의 의미에 변동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성에서 ‘가형 성분’의 통사적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의 각주 11)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구성에서 ‘가형 성분’이 모두 목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어미에 의해 행위자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나 명시적인 행위자 명사가 외현된 구성 즉 [N0-는 N1-이 Vt-어지다-어미] 구성에서 ‘가형 성분’을 非주어로 분석하는 시각을 유지한다(목정수 (2004, 2005) 참조). 이러한 구성에 실현될 수 있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N0 N1-(을) Vt]의 논항구조를 갖는 타동사이거나 경우에 따라 [N0 Vi]의 논항구조의 자동사이다.

(16) 가. 그는 요즘 글을 쓴다.

He is writing these days.

나. 나는 요즘 글이 잘 안 써진다.

I can't write well these days.

다. 왜 요즘 글이 잘 안 써지십니까?

Oh, can't you write well these days?

라. 요즘 글이 잘 안 써진다니?

You heard he can't write well these days?

(17) 가. 나는 문을 열고 있다.

I'm opening the door.

나. 어 문이 잘 안 열리지네.

Wow, I can't manage to open the door.

다. 그 문이 잘 열리지 않나 봐요.
Seems that he can't open the door.

(18) 가. 아이가 걷는다.

A baby walks.

나. 아이는 걸어지지 않나 봐.

It seems that the baby can't walk.

이상의 ‘-어지다’의보조동사 구성에서도 앞서의 접사 파생 피동동사와 마찬가지로, 타동사 앞에 사용된 목적어에서 유도된 논리적 주어—우리는 이를 非주어로 분석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전체 구문을 지배하는 명시적/묵시적 주어—우리는 이를 진짜 주어로 분석하고 있다—를 상정하게 되면, 이러한 구문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피동의 의미를 넘어서 제3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전체 주어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가능’의 의미와 연관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응되는 영어의 대역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미해석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4. 피동구문에서 {-시}는 어떤 주어와 일치하는가?

피동 구문 [N0-는 N1-이 Vpass-어미]에서 ‘가형 성분’ N1을 주어가 아닌 목적어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주어로 파악되는 다른 성분이 복원되거나 찾아져야 한다. 여기서는 존대표지 {시}를 통하여, {시}를 막연히 ‘주체존대’ 요소로 보는 것보다, ‘주어(=행위주) 지시(=존대) 요소’로 파악하면, {시}에 의해 지칭되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 행위주가 주어로 해석될 수 있고, 부가적으로 ‘가형 성분’ N1의 통사적 기능이 非주어, 즉 목적어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의 타당성을 살펴 보자.

첫째, 주관동사의 경우에 확실히 ‘가형 성분’이 대상역(theme)의 의미역을 할당받는 목적어로 분석되는 것이 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동사의 경우

도 ‘가형 성분’이 {시}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주어보다는 非주어(=목적어)로 분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18) 이 그림(이) [마음에 들]-세요?

목적어 주관동사 주어(굴절2인칭)

this picture like you

=> Do you like this picture?

(19)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부름말(=호격) 의문사 행위동사 주어(굴절2인칭)

grandfa, where go you

=> Grandfa, where do you go?

(20) 어머니는 눈이 [크]-시-다.

주어 목적어 기술동사 대명사인칭

mother eyes have_big she

=> My mother (she) has big eyes.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와 행위자 주어가 일치한다고 보면, 위에서 언급한 피동문 구성의 {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고, 이러한 구성에 나타나는 ‘가형 성분’ N1은 주어보다는 목적어로 해석하는 게 전체 구문 분석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N0가 주어가 되는 것이다.

(21) 가. 할아버지는 내가 쓴 것이 안 보이시나 봐요. (← 내가 쓴 것을 보다)

(주어: 할아버지, 목적어: 내가 쓴 것)

나. *나는 할머니가 안 그러지세요. (← 할머니를 그리다)

(주어: 나, 목적어: 할머니)

다. 할머니, 왜 걸음이 잘 안 걸어지세요? (← 걸음을 걷다)

(주어: 할머니(YOU), 목적어: 걸음)

3.6. 피동동사의 의미

피동동사 구문의 기본 구조를 ‘N0-는 N1-이 Vpass-어미’로 보고 ‘N0-이’ 성분을 非주어(=목적어)로 분석한다면 피동동사의 기본의미에서 논리적인 피동의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파생접사라는 것이 ‘능동-피동’의 의미관계를 전환시켜주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처럼 ‘가형 타동사’ 구성과 동일한 구성에 실현된 피동동사, 더 정확히는 피동동사 파생접사는 기본적으로 ‘가능(potential)’의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예에 대한 대역으로서 조동사 ‘can’을 사용한 이유는 거기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피동’의 의미와 ‘가능’의 의미가 하나의 동일한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는 일본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rareru} 구성은 그 동사가 실현되는 전체 문형 구조에 의해 ‘피동적’ 해석과 ‘가능적’ 해석이 결정되는 것이다.

- (22) 가. 今日は新聞がよく読まれないよ。
 오늘은 (나) 신문이 읽히지 않네요.
 [N0-は N1-が V-rareru] → 가능의 의미
 나. あのビルは1956年に建てられた。
 저 건물은 1956년에 건설되었다.
 [N0-は V-rareru] → 피동의 의미

그 밖에 피동 형식의 구조가 의미적으로 자발적 사건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구문, 또는 가능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여러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연재훈(2003, 2004) 참조). 이러한 유형론적 사실 또한 한국어의 특정한 구조의 피동문을 ‘가능’의 의미로 해석해 내는 데 근거가 된다.

- (23) Hindi(Shibatani 1985:828)
- | | | | | | | | |
|-------|------|-------|-----|----|-------|-----------|------|
| larke | se | cal | - | aa | nahii | ga- | yaa. |
| boy | Inst | walk- | PPL | | Neg | Pass-Past | |

“The boy was not able to walk”

(24) Turkish(Davison 1980:60)

Cevap yaz-mak için kagit-la kalem kullan -il -ir.
answerwrite-Inf for paper-and pen use-Pass-Pres
“Paper and pencil may be used to write the answer”

(25) Spanish(Shibatani 1985:828)

?Se va por aqui a la estacion?
REFL go via here to the station
“Can one go to the station from here?”

4. 결론

우리는 한국어 피동구문을 논리명제적인 차원에서 파악할 때, 자칫 간과할 수도 있는 문형의 문제를 피동동사와 피동구문 속의 ‘가형 성분’ N1의 통사적 기능의 점검을 통해 제기해 보았다. 논의의 발단은 한국어 조사 {이/가}에 대한 기존 정의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어 문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진짜 주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까지 논의가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기존에 해당 동사의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 자체에 입각하여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파악하려던 시각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문형(sentence pattern)의 파악은 한국어의 동사나 양태 관련 어미가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인칭구조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거시적 구조를 염두에 둘 때, 한국어 피동문이 보여주는 의 의미 해석의 한 양상으로서 ‘가능’의 양태적 의미가 상정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해석은 문장의 구조 [N0-는 N1-이 Vpass-어미]에 기반하고 있음과 아울러, 또 다른 차원에서 즉, 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칭구조(person structure)라는 차원에서 제약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피동구문과 관

련된 양태적 해석, 즉 ‘가능(potential)’의 의미의 연원을 구조에서 찾아냄으로써, 의미(meaning)와 형태(form)의 상관성(isomorphism)의 한 측면을 밝히는 성과를 얻었다.

참고문헌

- 강은국, 『조선어 문형연구』, 박이정 영인본, 1993.
- 고광주, 『국어의 능력성 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1.
- 고영근,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1993.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권재일, 『한국어 통사론』(개정판), 서울:민음사, 2000.
- 김귀화, 『국어의 격 연구』, 한국문화사, 1994.
- 김영주, “주어 탈락 현상의 언어간 비교와 이론적 모색”,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264-280, 1995.
- 김홍규·강범모,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 남기심, “서술절 설정은 타당한가”,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1986.
-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1993.
- 남승호, “한국어 이동동사의 논항구조와 사건구조”,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229-281, 소화, 2000.
- 노마 히데키, “한국어 문장의 계층 구조”, 『언어학』 19, 133-180, 1996.
- 노마 히데키,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태학사, 2002.
- 노용균, “Existential Quantification of Experiencer: Person Constraint on Emotion Verbs and Zero Anaphora”,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Harvard University, 1989.
- 리근영, 『조선어리론문법』,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탑출판사에서 북한자료총서로 영인, 1985.
- 목정수, “격조사 교체 현상에 대한 통사·의미적 논의의 재검토: 조사류의 새로운 질서를 토대로”, 『언어정보』 2, 27-81, 1998.
- 목정수,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대한 연구: 체계적 품사론을 위하여”, 『언어학』 31, 71-99, 2002.

- 목정수(가), “한정조사 {이나}의 통사론과 서법 제약”, 『한글』 260, 113-148, 2003.
- 목정수(나), “한국어-불어 대조 번역을 통한 구문 분석 시론: 종결어미의 인칭 정보를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54, 719-758, 2003.
- 목정수(다), 『한국어 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2003.
- 목정수, “pseudo-support verb constructions: an essay of modal interpretation of support verb in Korean”, Korea-France Joint Workshop at Paris, 2004.
- 목정수, “기술동사와 주관동사 앞의 ‘가형 성분’의 통사적 기능: 단일주어설 정립을 위하여”, 『어문연구』 124, 37-62, 2004.
- 목정수, “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41, 75-99, 2005.
- 목정수 · 유현조, “한국어 동사·어미 범주와 주어 인칭의 상관관계”, 『어학연구』 39-3, 2003.
- 박형달, “현대한국어의 보조동사의 연구-기능적 언어분석의 시론-”, 『언어학』 1, 43-72, 1976.
- 백준범, 『단어결합과 어롤림연구』, 사회과학출판사, 한국문화사에서 영인, 1992.
- 서정수, 『현대 한국어 문법 연구의 개관』(개정판), 한국문화사, 1996.
- 서태룡, “국어형태론에 기초한 통사론을 위하여”, 『국어학』 35, 251-285, 2000.
- 안명철, “이중주어 구문과 구-동사”, 『국어학』 38, 181-207, 2001.
- 안희돈, *Light verbs, VP-movement, Negation and Clausal Architecture in Korean and English*. Ph.D. 위스콘신대학 박사학위논문, 1991.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 연재훈, “국어여격주어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41-275, 1996.
- 연재훈,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1, 107-132, 1997.
- 유현조, 『한국어 어미 구조의 문법적 보편성에 관한 연구: 형태 분석에 기반한 대조 언어학적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정민, “Cases for psychological verbs in Korea”, 『언어』 1-1, 61-73, 1976.
- 이춘숙 · 노용균, “한국어 영형 대명사의 식별 알고리즘”,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353-357, 1998.
- 임동훈, 『현대 국어 경어법 어미 ‘-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임홍빈, 『국어 문법의 심층 1, 2, 3』, 태학사, 1998.
- 전태현 · 목정수, “인도네시아어 피동 구문 연구: 대조 유형론적 관점에서”, 『이중 언어학』 27, 161-184, 2005.
- 조의성, “현대한국어의 단어결합에 대하여”, 『조선학보』 163, 1-36, 1995.

- 조의성, “북한 단어결합론과 옛 소련 단어결합론 -60 문법을 중심으로-”, 『국어학』 38, 305-327, 2001.
- 최기용, “‘있-’의 범주, 논항 구조 그리고 능력성”, 『국어학』 32, 107-134, 1998.
- 최현배, 『우리말본』(3판), 정음문화사, 1961.
- 홍재성 외, 『한국어 동사구문 사전』, 두산동아, 1997.
- 홍재성 외,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문화관광부, 2002.
- Curat, H., *La Locution verbale en franmoderne: Essai d'explication psycho-syst*,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Qu, 1982.

[Abstract]

A Structure of Passive Constructions in Korean and their meaning 'Potential'

Jung-soo Mok · Yeong-jung Kim

(University of Seoul ·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hich syntactic function should we assign to the 'ga-type' constituent which occurs in the morphological passive constructions in Korean, [N0-neun N1-i Vpass-ending]? This problem is very important in two respects. First, a small change of status of the particle '*i/ga*' can exert an overall influence on the Korean grammar. Second, the particle '*-i/ga*' cannot guarantee that '*ga*-type' constituents are subject of the sentence, so that the concept of syntactic category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at of syntactic function.

This paper claims that the analysis of sentence has long been focused on the structure of proposition, namely the argument structure and that the direction of analysis should be turned to the 'person structure' which can be revealed on the *pragmatic* level. On the basis of thi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pecific type of

the morphological passive constructions in Korean, [N0-*neun* N1-*i* Vpass-ending] should be analysed in line with the psych-verb constructions and that the modal meaning 'potential' of the passive constructions is correlated with sentence pattern and 'person structure'.

keywords: sentence pattern, person structure, passive construction, subjective verb construction

접 수 일 : 2006년 10월 30일

심사기간 : 2006년 11월 1일-11월 20일

재 심 사 : 2006년 11월 27일

게재결정 : 2006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